

2019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후기

파견기간	2019.10.01 - 2020.02.21	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	소 속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파견국가	독일		성 명	송한결
파견대학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TUM)		작성일	2020.02.14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학생에 대해 잘 모를 때)

나 : 교환학생 다녀왔다며? 어땠어?

친구 : 진짜 너무 좋았어. 대학교 와서 한 것중에 제일 좋았어. 너도 기회가 되면 꼭 가.

(교환학생 고민할 때)

나 : 교환학생 가는 것 어때요?

선배 : 나는 안 가봤고 방학때 스누인 지원해서 한달만 가봤는데 엄청 좋았어. 졸업 전에 교환학생 갈 걸 하고 후회했지. 이번에 가는 거 잘 생각했어. 많이 놀고 많이 배워서 오렴.

(교환학생 붙은 뒤)

친구 : 왜 독일로 가?

나 : 공학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유럽연합 맹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분단을 겪기도 한 나라여서 사람들이 어떨지 궁금했어. 사실 먼저 독일로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가 살기 좋다길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지. 한국을 벗어나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갈지 오래 고민한 건 아니야.

친구 : 독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너 뮌헨으로 교환학생 간다고 하니까 너 부자냐고 물어보던데.

나 : ... 그래도 뮌헨에는 맥주가 있다.

알고 보니 뮌헨은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생활 물가는 다행히 비싸진 않았지만.

이 글은 '귀국보고서' 이지만, 후기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독자를 저와 같은 학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글이 늘어지면 읽기 싫어져서 저도 꺼려지지만, 그래도 제 소개를 해야 읽는 분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보정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와 함께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 학점이 낮아 1지망이 당연히 안될 줄 알고 2지망이던 아헨공대 정보를 신나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덜컥 뮌헨 공대에 붙어버렸습니다.

- 저축한 돈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남은 돈으로 이후 학기를 꾸려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성비엔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 그런 것 치고는 철저하지 못해서 뮌헨이 어떤 도시인지 제대로 조사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 국내여행조차 거의 다니지 않았지만, 여행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교환학생을 계기로 여행을 취미로 만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 교환학생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경험은 “낯선 곳에서 살아본 경험” 이었습니다.

II. 세부 경험 내용

1. 나이는 숫자, 국적은 문자

나 :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해.

일본 친구 :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한참 뒤)

일본 친구 : ... 그래서 나는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실에 가려고 해.

나 : 멋지다! 우리 학교로 치면 기계전공이랑 전기전자전공을 합친 셈이네!

학기 초, 디즈니 성의 원형이라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성도 멋있었고 경치는 더 멋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교통도 편하게 왔는데, 딱 하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오랫동안 뻘컘하게 있었죠. 그 때는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일본 친구를 봤을 때 쉽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거미줄을 친 지 3시간이 넘어가자 이 불편함이 저 불편함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막상 말을 걸고 보니, 이 친구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한국에서 잠시 학교간 교류를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전공,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엔 오랜 친구와 놀다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데도 무척 어른스러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다른 친구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나라에서 왔냐고 묻길래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놀라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일본 친구랑 붙어 다니길래 한국은 아닐 줄 알았다고 합니다. 괜시리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날 “그래, 교환학생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 뮌헨에서 산책하기

아저씨 : 안녕!

나 : ... (당황해서 인사할 타이밍 놓침)

(그 다음 마주친 부부)

나 : 안녕! (이번엔 안놓쳐야지)

부부 : 독일어 독일어

나 : (알아들은 척 미소)

독일의 겨울 날씨는 우울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낮이 짧을 뿐더러 그마저도 흐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습한데 기온이 충분히 낮지 않아서 눈보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중한 해님이 나오시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합성 장소로 가장 인기있는 곳은 아무래도 영국 정원입니다. 뮌헨의 자랑인 영국 정원은 미국의 센트럴 파크보다 크다고 합니다. 가운데에 길게 강이 흐르는데, 물살이 빠른 곳에서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이 날 산책을 나온 것은 절대 수업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이 독일어 수업에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교수님과도 덕담을 주고받았으니 너그러이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침 공기가 생각보다 차서 잔뜩 움츠리고 걷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아저씨가 불쑥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대로 몇 걸음 더 걸어 아저씨가 지나간 뒤에야, 대답을 하지 못한

미안함과 그동안 배운 독일어 인사만 세 종류가 넘는데도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다음에 누가 오든 간에 먼저 인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죠. 그 상대는 아침 산책을 나온 부부였습니다. 입속으로 몇 번이고 연습한 인사를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자, 웃으며 같이 인사해주시고는 제 손에 들린 빵과 음료를 보며 고급 독일어로 여러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미소를 짓고 빵을 살짝 들어보이며 능숙하게 대화를 종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좋은 날씨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구나!”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뿌듯한 건 그 순간 그분들한테 제가 댜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댜헨에 살고 있었습니다.

3. 거주허가

친구 : 나 오늘이 89일째야.

나 : 에에에 불법체류자래요~

친구 : 농담 아냐 지금 비자 못받으면 아이슬란드 여행 취소해야해.

나 : ...(숙연)

친구 : 그리고 너도 똑같이 비자 받으러 와서 새벽부터 줄서있으면서.

나 : ...(정곡)

독일로 교환학생을 온 사람들이 초반에 가장 신경쓰는 건 아무래도 비자, 혹은 비자를 얻기 위한 여정일 것입니다.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지만 그 뒀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거주등록, 은행계좌, 보험 이 세 가지를 완료해야만 악명높은 비자받기에 도전할 "자격"을 얻습니다.

- 거주등록

독일에 도착하고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준비해갔지만 제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직원 분이 답답해해서 민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시간과 장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장소를 고를 때, 비자 등 다른 업무도 같이 처리하는 비자청은 사람이 많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거주등록 온라인 예약 : https://www.muenchen.de/rathaus/terminvereinbarung_bb.html

- 은행계좌 + 유심

독일 은행엔 N26이 있습니다. 일반 독일 은행이 계좌 개설과 온라인뱅킹이 각각 며칠씩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는데, 이와 달리 가입과 사용이 편리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강하게 추천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독일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유심은 ALDI TALK을 사용했습니다.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잘 터지고 가격도 적당한 수준이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둘 다 핸드폰 어플을 통해 사용했습니다.

- 보험

교환학생 합격 후, 아직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는데, 보험이 가장 꼬였습니다. TUM에서는 독일 공보험을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이 싼 사보험은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는 TK라는 공보험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증명할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그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독일 기숙사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국제전화 할 방법을 찾아 독일 보험사에 전화상담을 여러 번 걸고 나서야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메일로 잘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운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자 받을 때 남들보다 쉽게 끝난 걸 생각하면 이게 액땜이었지요.

독일에 도착한 뒤에 원칙적으로 2주 내로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서 계약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며칠 늦게 갔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해결해주셨습니다. 이 때 기숙사 주소, 돈이 빠져나갈 계좌번호 등을 기입했습니다. 나중에 비자에 사용할 보험 증명 서류도 이 때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 비자

독일에서는 Visa 보다 Residence permit(체류 허가) 에 해당하는 단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뮌헨에서는 한 곳에서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독일의 행정체계에 대해 가장 큰 절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직원마다 별도의 정책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똑같이 한국에서 교환학생 왔고, 필요하다는 서류 다 준비해 왔고, 계좌에 정해진 금액 이상이 넉넉히 있어도, 담당 직원과 시기에 따라 당신이 학생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로 된 50유로 정도의 비자를 몇 시간 걸려 당일에 받을지, 카드 형태로 된 100유로 정도의 비자를 몇 주 후에 받을지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온라인 예약을 잡고 가는 게 좋지만 보통 꼭 차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비자청이 열 때까지 줄을 선 채로 혹시나 하고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계속 새로고침하다가 겨우 예약을 잡아서 긴 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 교수님께 도움을 받아 '독일어를 배우고 있지만 잘 못합니다. 영어로 대화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을 외워올 정도로 긴장했었는데, 막상 운이 좋았는지 별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자청에 2번 가는 경우, 3번 가는 경우, 귀국 직전인 2월까지도 비자가 배송되지 않아 임시비자 상태라 독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재정 증명 서류, 학교 제적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거주지 등록 서류, 여권, 여권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관련 링크만 첨부합니다.

비자 기본 정보 : <https://seoul.diplo.de/kr-ko>

뮌헨 비자청 예약 : https://www.muenchen.de/rathaus/home_en/Department-of-Public-Order/Foreigners-Office/appointment-booking.html

(이곳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며칠 뒤 이메일로 답신이 오고, 그 지시사항을 따라가면 실제 시간을 예약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새로고침하다 예약을 잡은 링크입니다. 평소엔 자리가 거의 없고, 업무 시작 시간 즈음해서 드물게 자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4. 기숙사

이집트 친구 : 우리나라는 위치, 자원, 인구 등 많은 면에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시스템과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야.

나 : 아..(이렇게까지 생각을 정리해본 적 없음)

뮌헨은 살기 좋은 도시지만 살기 쉬운 도시는 아닙니다. 기숙사는 대기시간이 매우 길고, 기숙사가 아니라면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그마저도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생이 아닌 경우 기숙사가 옵션에서 빠지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유럽 밖에서 교환학생을 오는 경우엔 집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대부분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방은 6명이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기숙사였는데, 한 학기동안 여기서 지냈던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방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 집에 잠시 얹혀 살거나, 원래 살던 학생이 여행이나 귀국 등으로 방을 잠시 내놓으면 1-2개월 정도 그 방에 살고 다시 새로운 방을 찾아다니는 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드론 사진촬영이 취미인

옆방 인도 친구도 이런 생활을 하다 기숙사를 신청한 지 2년만에 자기 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인지 때문인지 한 기숙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왔을 때,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을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는데, 작은 칠판에 환영한다며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 방 문을 두드리라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물리학과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무려 4년이 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전 학기 기숙사 학생 대표를 맡았고, 이후에도 이것 저것도 맡아하면서 이 기숙사단지 전체에서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덕분에 기숙사에 오자마자 기숙사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따뜻한 환영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친구와는 만난 첫 날부터 서로의 나라와 세계 환경 문제부터 우리의 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땐 파키스탄 친구와 함께 방에 모여 맛있는 차를 나눠 마시고 “우리나라엔 이런 것도 있어!” 라면서 각자 자기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로 자기 나라말로 이야기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모르는 말에 집중해 언어 자체를 감상해본 무척 인상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기숙사는 제가 교환학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걸 배운 곳입니다. 유럽에 와서 꼭 여행을 바쁘게 다녀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본 도시를 다 합쳐도 10개가 겨우 넘는데, 교환학생 생활이 만족스럽거든요.

전체 기숙사 홈페이지 : <https://www.studentenwerk-muenchen.de/en/student-accommodation/>

Studentenstadt 내부 홈페이지 : <https://wiki.stusta.de/Hauptseite>

5. 그 밖에 쓸모있는 것들

- 수업 : 수강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언어 수업처럼 빠르게 마감되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전달력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활발한 점도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 날짜가 학기 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험 날짜가 귀국 이후인 수업이 발견된다면 그 교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려 보는게 좋습니다. 수강신청과 시험신청이 별개이므로, 성적을 받고 싶은 과목은 학기중에 시험까지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강신청 및 시험신청 : <https://campus.tum.de/tumonline/webnav.ini>

수업 온라인 홈페이지(서울대의 eTL과 비슷) : <https://www.moodle.tum.de/>

- 이벤트 : 크게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들과, Student Union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뭘든 근교로 여행가기부터 특정 컨셉을 잡은 파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학기 시작 직전과 학기 중에 계속해서 행사가 있고, 인기있는 행사는 금방 마감됩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활동이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와 함께 SNS 그룹이 있어 그곳에도 공지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벤트 모음(TUM) : <https://esn-tumi.de/events/list>

이벤트 모음(Student Union) : <https://www.studentenwerk-muenchen.de/en/culture/>

(원헨은 기숙사를 학교가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데, Student Union이 기숙사도 하고 이런 이벤트도 합니다)

- Buddy program : 학부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없는 과도 있었습니다. 매칭이 개강 이후로 늦어져 많이 친해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II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대학생이 된 첫 학기, 기억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첫 학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저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 새로운 장소에 가볼 기회, 새로운 활동을 해볼 기회가 넘칠 듯이 주어졌습니다. 대신, 처음에 비해 저 스스로를 조금 더 잘 알고,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지요. 그렇게 보낸 이번 학기를 돌이켜보면 또다시 저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선 집에서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또, 관악에 있을 때보다 여유로운 생활 덕분에 수업 하나하나에 더 몰입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를 깨우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군대로 휴학한 기간이 조금 긴 편이었는데, 졸업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을 왔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면, '나를 죽이지 못한 시련은 나를 성장시킨다' 는 점을 생각하시고,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그 우여곡절까지 내 경험으로 만들어보세요. 당신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하든 분명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미리 축하합니다!